

2020년 6월 13일 시행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총평(B책형)

한국사 박성근 교수

전반적으로 매우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주제들도 한국사를 학습하면서 쉽게 많이 접했던 내용들이었고 문제 유형도 까다롭지 않아 평균 점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구성을 시대별로 분석해 보면,

구분	문항수	내용
상고사	1	옥저
고대사	3	진흥왕, 대가야, 발해(통일신라)
고려사	3	광종, 별무반, 공민왕 이후
조선사	4	명종, 박지원(실학자), 세종, 환국정치
근현대사	8	박은식, 근우회, 덕수궁, 통리기무아문, 독립협회, 이회영과 경학사 3차개헌, 대한민국정부 수립 과정
세계유산	1	세계문화유산

고대사 이전에서 옥저 관련하여 1문항만 출제되었고, 고대사도 3문항 출제되어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고려사는 3문항 출제되었고 조선사는 4문항 출제되어 기존의 출제 경향과 비교해 볼 때 조선사의 출제 비율이 낮아졌다. 그리고 근현대사는 예상했던 대로 압도적인 출제 비율을 보이며 8문항이 출제되었다. 한동안 안 보였던 세계유산과 관련한 문제가 1문항 출제된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많이 쉽게 출제되었다. 일반적으로 근현대사의 출제 비율이 높으면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2020년 지방직 시험에서는 근현대사가 8문항이나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쉽게 출제되었다.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주로 각 국왕과 관련한 사실과 업적을 묻는 문제나 특정 단체나 인물 등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어 문제 유형도 매우 무난하였다.

다만, 자그마한 함정들을 숨겨 놓은 문제들이 몇몇 보여서,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자그마한 실수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였다. 앞서 문항들이 주로 국왕의 업적이나 당시 사실과 관련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18번의 공민왕 이후의 사실을 묻는 문제에서 성급하게 공민왕의 업적을 찾는 문제로 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9번의 대가야와 관련한 문제는 익숙지 못한 사료와 선택지로 출제되어 긴장된 시간 속에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을 듯하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차분히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갔다면 높은 점수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그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노고에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정답 및 해설]

1.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책으로 편찬해 놓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왕이 깊이 동감하고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선비들을 널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정전 지급
- ② 국학 설치
- ③ 첨성대 건립
- ④ 북한산 순수비 건립

1.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를 통해 국사를 편찬한 내용이다.

- ④ 진흥왕은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하고 신주를 설치하면서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 ① 통일신라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② 국학은 통일신라 신문왕 때 설치되었다.
- ③ 신라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건립하였다.

2.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개경을 고쳐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였다.

- ①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 ②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③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 ④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2. 정답 : ①

광덕, 준풍의 연호를 사용하고 개경을 황도라 칭한 것은 광종 때의 사실이다.

- ① 광종은 양인의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풀어주었다.
- ②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마련되었다.
- ③ 성종 때 유학 정치를 실현하면서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 ④ 성종 때 지방 제도를 정비하면서 12목을 설치하고 고려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3.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대한매일신보에 애국적인 논설을 썼다.
☐ 유교 개혁의 뜻을 담은 「유교구신론」을 집필하였다.

- ① 적극적인 의열 활동을 위해 한민애국단을 만들었다.
②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③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④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3. 정답 : ②

박은식에 대한 내용이다. 박은식은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하였고 『유교구신론』을 집필하여 대동사상을 주창하였다.

- ② 박은식은 1915년에 『한국통사』를 저술하여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특히 고종 즉위부터 105인 사건 발생까지 역사를 시대 순으로 서술하였다.
① 김구가 1931년에 상해에서 한민애국단을 결성하였다.
③ 1934년에 이병도, 손진태 등이 중심이 되어 실증사학을 표방하며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④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1921년에 의열단의 사기를 높이고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4. (가) 단체로 옳은 것은?

(가) 발기취지(發起趣旨)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한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성 문제는 그중의 하나이다. …… 과거의 조선 여성운동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지도 정신도 없었고 통일된 항쟁이 없었다. …… 우리는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 『동아일보』, 1927. 5. 11. -

- ① 근우회
② 신간회
③ 신민회
④ 정우회

4. 정답 : ①

여성운동이라는 정보와 여성 운동의 단결을 추구한다는 정보를 통해 1927년에 김활란의 주도로 결성된 근우회임을 알 수 있다.

- ② 신간회는 1927년에 좌우 세력이 합작하여 결성된 항일단체이다.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이다.
③ 신민회는 1907년에 안창호와 양기탁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애국계몽단체이다.
④ 정우회는 1926년에 결성된 사회주의 단체로,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5.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이곳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 있던 곳으로, 선조가 임진왜란 뒤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었고, 광해군 때는 경운궁이라 하였다. 아관 파천 후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주요 건물로는 중화전, 함녕전, 석조전 등이 있다.

- ① 경복궁
- ② 경희궁
- ③ 창덕궁
- ④ 덕수궁

5. 정답 : ④

경운궁이라는 힌트와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머물렀다는 사실을 통해 덕수궁임을 알 수 있다.

- ① 경복궁은 조선을 개창하면서 태조가 건립하였고 흥선대원군 때 복원되었다.
- ② 경희궁은 광해군 때 정원군의 옛 집에 지은 궁궐로 본래 경덕궁이라고 불렸다.
- ③ 창덕궁은 태종이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지은 궁궐로 광해군 때 복구하였다.

6. 밑줄 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나라는 대군왕이 없으며, 읍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장수(長帥)가 있다. …… 이 나라의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사람들의 성질은 질박하고, 정직하며 군세고 용감하다. 소나 말이 적고, 창을 잘 다루며 보전(步戰)을 잘한다. 음식, 주거, 의복, 예절은 고구려와 흡사하다. 그들은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꺾(擻)을 만드는데 길이가 십여 장(丈)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민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읍군
- ② 위만에게 한나라의 침입을 알리는 장군
- ③ 5월에 씨를 뿌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군
- ④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마가와 우가

6. 정답 : ①

나라에 대군장이 없고, 오곡이 잘 자라며 장사 지낼 때 꺾을 사용하다는 사실을 통해 이 나라가 옥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옥저의 결혼 풍습은 민며느리제로 여자 나이가 어렸을 때 남자 집으로 가는 결혼 풍습이 있었다.
- ② 옥저와 관련 없는 사실이다. 옥저는 위만조선에 예속되어 있었다가 위만조선이 멸망한 후 현도군의 일부가 되었다.
- ③ 삼한의 계절제에 대한 내용이다. 옥저는 제천행사에 대한 기록이 없다.
- ④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부여의 군장 세력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으로 불렀다.

7.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꺽정은 양주 백정으로, 성품이 교활하고 날래고 용맹스러웠다. 그 무리 수십 명이 함께 다 날래고 빨랐는데,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만약 항거하면 몹시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다. 경기도와 황해도의 아전과 백성들이 임꺽정 무리와 은밀히 결탁하여, 관에서 잡으려 하면 번번이 먼저 알려주었다.

- ① 동인과 서인의 봉당이 형성되었다.
- ②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며 불교를 옹호하였다.
- ③ 삼포에서 4 ~ 5천 명의 일본인이 난을 일으켰다.
- ④ 조광조가 내수사 장리의 폐지, 소격서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7. 정답 : ②

임꺽정의 난은 조선 명종 때 발생하였다.

- ②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면서 불교를 옹호하였고 보우 승려를 중용하면서 승과를 부활하기도 하였다.
- ① 선조 때 척신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가운데 사림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다.
- ③ 중종 때 발생한 삼포왜란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중종 때 조광조가 도학정치를 추구하면서 내수사 장리를 폐지하고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8. 밑줄 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적의 기세를 보건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세니, 마땅히 군사를 쉬게 하고 군관을 길러서 후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은 기병(騎兵)인데 우리는 보병(步兵)이라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그가 건의하여 처음으로 이 부대를 만들었다.

- ① 정종 2년에 설치되었다.
- ②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 ③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 ④ 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과 6위로 편성되었다.

8. 정답 : ③

윤관의 건의로 고려 숙종 때 설치한 별무반이다.

- ③ 별무반은 여진족의 침략에 대응하여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 등으로 편성하여 조직한 부대이다.
- ① 정종 2년에 청천강 유역에 3만의 광군을 설치하였다.
- ② 귀주대첩은 거란 3차 침략 때 강감찬이 거란군을 격파한 전투이다.
- ④ 2군 6위는 고려의 중앙 군사조직이다.

9.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삼한의 종족이며, 지금의 고령에 있었다. 건원 원년(479)에 그 국왕 하지(荷知)는 사신을 보내 남제에 공물을 바쳤다. 남제에서는 국왕 하지에게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하였다.

- ①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하였다.
- ② 울릉도를 정복해서 영토로 편입하였다.
- ③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 ④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하였다.

9. 정답 : ③

삼한의 종족으로 고령 지방에서 형성되었고 479년이라는 연도를 통해 대가야임을 알 수 있다.

③ 대가야는 세력을 확장하면서 한때 소백산맥을 넘어 전라도 남원지방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 ①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②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울릉도)를 정복하였다.
- ④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하였다.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해 왕의 재위 기간에 통일 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옳은 것은?

- 대흥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수도를 중경 → 상경 → 동경으로 옮겼다.
-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천손(하늘의 자손)이라 표현하였다.
-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며 당의 문물을 도입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① 녹읍 폐지
- ② 청해진 설치
- ③ 『삼대목』 편찬
- ④ 독서삼품과 설치

10.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발해 문왕과 관련한 내용이다. 발해 문왕 재위 시기의 신라 국왕은 경덕왕, 혜공왕, 원성왕이었다.

④ 신라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6두품 세력을 우대하고자 하였다.

- ① 녹읍은 신문왕 때 폐지하였다. 경덕왕 때 녹읍을 부활하였다.
- ② 청해진은 장보고가 왕실의 지원을 받으며 흥덕왕 때 설치하였다.
- ③ 『삼대목』은 진성여왕 때 각간 위홍 등이 편찬하였다.

11.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서울의 노론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양반전』을 지어 양반사회의 허위를 고발하였다. 그는 또한 한전론을 주장하였으며, 상공업 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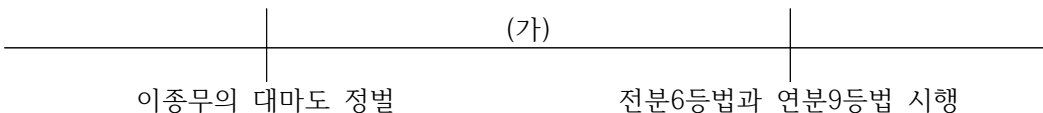
- ① 『북학의』
- ② 『과농소초』
- ③ 『의산문답』
- ④ 『지봉유설』

11. 정답 : ②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다.

- ② 박지원은 『과농소초』에서 ‘한민명전의’를 통해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 ① 『북학의』는 박제가의 저술이다. 우물물에 빗대어 소비를 중시하였다.
- ③ 『의산문답』은 홍대용의 『담헌서』에 있는 내용으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였다.
- ④ 『지봉유설』은 이수광이 광해군 때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저술이다.

12.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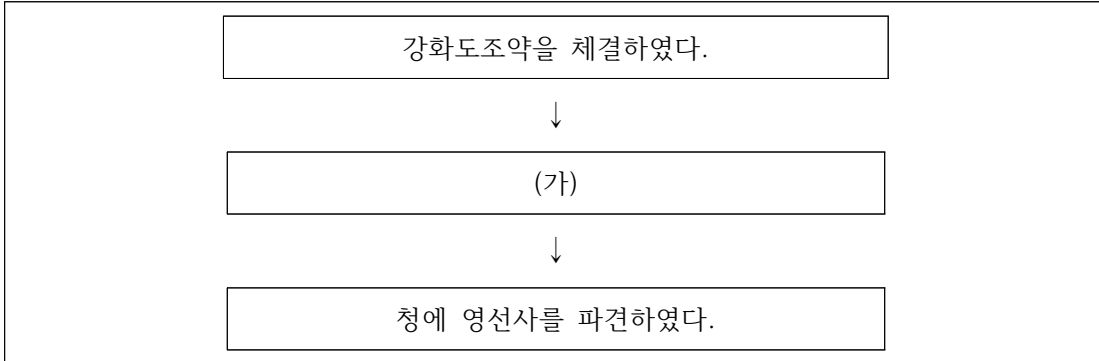
- ① 과전법 공포
- ② 이시애의 반란
- ③ 『농사직설』 편찬
- ④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

12. 정답 : ③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세종 원년의 사실이다. 또한 세종은 공법제를 마련하여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시행하였다. 세종 때의 사실을 묻는 문제이다.

- ③ 세종 때 최초의 관찬 농서인 『농사직설』을 간행하였다.
- ① 과전법은 공양왕 때인 1391년에 공포하였다.
- ② 이시애의 난은 세조 말엽에 발생하였다.
- ④ 태조 때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차 왕자의 난으로 좌절되고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 제거되었다.

13.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 ① 군국기무처를 두고 여러 건의 개혁안을 처리하였다.
- ② 개화 정책을 추진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 ③ 국정 개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홍범 14조를 공포하였다.
- ④ 구본신참의 개혁 원칙을 정하고 대한국국제를 선포하였다.

13. 정답 : ②

강화도조약은 1876년에 체결하였고 영선사는 1881년에 파견하였다.

② 고종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1880년에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①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을 실시하면서 1894년에 설치되었다.

③ 홍범14조는 2차 갑오개혁을 실시하면서 1894년 12월에 공포되었다.

④ 1897년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한 이후 구본신참의 원칙으로 광무개혁을 실시하고 1899년에 대한국국제를 선포하였다.

14.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 ① 종묘
- ② 화성
- ③ 한양도성
- ④ 남한산성

14. 정답 : ③

③ 한양도성은 세계 문화 유산이 아니다.

①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등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에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② 수원화성은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담은 종합복합도시로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④ 남한산성은 수도 한양을 지키던 성곽으로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5.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자	주제
1897. 8. 29.	조선에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
1897. 9. 5.	도로 수정하는 것이 위생에 제일 방책
⋮	⋮
1897. 12. 26.	인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개명케 하려면 우리나라 신문지며 다른 나라 신문지들을 널리 반포하는 것이 제일 긴요함

- ① 헌정연구회의 활동을 계승하여 월보를 간행하고 지회를 설치하였다.
- ② 국민 계몽을 위해 회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③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 ④ 일본이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토지를 약탈하려 하자 대중적 반대 운동을 벌였다.

15. 정답 : ②

1897년이라는 연도와 ‘인민 교육’, 신문지 반포 등을 통해 관련 단체가 독립협회임을 알 수 있다.

- ② 독립협회는 국민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회보를 발간하였도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등의 대규모 집회도 열었다.
- ① 헌정연구회를 계승하여 만들어진 단체는 대한자강회이다.
- ③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행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황국협회이다.
- ④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보안회이다.

16.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경술년(1910)에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 그(1867 ~ 1932)는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 기관인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 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 ②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 ③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다.
- ④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였다.

16. 정답 : ②

여러 형제들과 만주로 떠나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이회영임을 알 수 있다.

- ② 이회영은 이동녕 등과 함께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서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자치조직으로 경학사를 만들고 교육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 ①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에 발생하였다. 장지영, 최현배 등이 옥고를 치렀다. 이회영은 1932년에 고문으로 옥중에서 돌아가셨다.

③ 이회영은 1919년 전후 시기에 주로 북경 등 해외에서 활동하였고 민족대표 33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④ 삼균주의를 주창한 인물은 조소앙이다. 1935년에 김구 등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였다.

17. 밑줄 친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서는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책임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 『경향신문』, 1960. 6. 16. -

- ①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 ②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 ④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다.

17. 정답 : ④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3차 개헌에 대한 내용이다.

④ 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 체제에서 양원제를 통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총선을 거쳐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결성하였다.

① 6.25 전쟁 중인 1952년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1차 개헌(발췌개헌)이 이루어져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하였다.

②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시킨 개헌은 1954년의 2차 개헌이다.

③ 1972년 유신헌법(7차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18.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안성현을 안성군으로 승격시켰다. 홍건적이 양광도를 침입하자 수원은 항복하였는데, 작은 고을인 안성만이 홀로 싸워 승리함으로써 홍건적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 ① 화약 무기를 사용해 진포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② 처인성 전투에서 적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③ 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쌍성총관부의 관할 지역을 수복하였다.
- ④ 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18. 정답 : ①

공민왕 때 발생한 홍건적의 침략에 관한 사료이다. 공민왕 이후의 사실을 묻는 문제이다.

- ① 우왕 때인 1380년에 진포해전에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통해 왜구를 격퇴하였다.
- ② 처인부곡 전투는 고종(최우 집권기)에 발생한 몽고 2차 침입 때의 사건이다.
- ③ 공민왕 집권 초에 반원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유인우를 통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 ④ 팔만대장경은 거란 2차 침략 때 처음 제작하였고 몽고 2차 침략 때 소실되면서 몽고 3차 침략 시기인 1236년에 재조대장경으로 다시 조판하였다.

19.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가)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허적과 윤휴 등이 처형되었다.
 (나)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귀하였다.

- ①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였다.
- ②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하였다.
- ③ 서인 정치에 한계를 느낀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켰다.
- ④ 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부대를 영고답으로 파견하였다.

19. 정답 : ①

(가)는 숙종 때 발생한 경신환국이고 (나)는 갑술환국이다.

- ① 경신환국 이후 원자정호 문제로 기사환국이 발생하여 남인이 재집권하고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는 등 서인들이 실권하였다.
- ② 예송 논쟁은 현종 때 발생하였다.
- ③ 정여립 모반 사건은 선조 때 발생한 사건이다.
- ④ 효종 때 청나라의 요청으로 나선정벌군을 영고답으로 파견하였다.

20. 다음의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제정하였다.
 (나)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다)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 ① (가) - (다) - (나) - (라)
- ② (나) - (다) - (라) - (가)
- ③ (다) - (라) - (나) - (가)
- ④ (라) - (나) - (가) - (다)

20. 정답 : ③

(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라) 1946년 3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나) 1946년 7월에 여운형과 김규식의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여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가) 1948년 5.10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하였다.